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4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싱크탱크, 2분기·3분기 성장 둔화 전망 — page 1-2
- 필리핀 관세청, 수입업자 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 page 2
- 2025년 말까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추가 2차례 인하 전망 — page 3
- 필리핀 수출업체, 무역 진흥을 위한 더 큰 지원 촉구 — page 4
- 필리핀-EU 무역 협상 진전 중 — 산업통상부 — page 5
- 에너지부, '장기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단속 강화 — page 5-6
- 마르코스 대통령-트럼프 회담 앞두고 PH-미국 간 관세 협상 여전히 진행 중 — page 6-7

UPCOMING EVENT

- [July 30, 2025] 제1회 트라이컨티넨탈 골프 챌린지 대회 — page 8

싱크탱크, 2분기·3분기 성장 둔화 전망

July 22,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국내 수요 부진으로 2분기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델라살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DLSU) 앙헬로 킹 연구소(Angelo King Institute, AKI)의 경제학자들이 전망했다.

DLSU-AKI는 2025년 7월 정책 브리프에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5.1%로 둔화되고, 3분기에는 5.01%까지 낮아진 뒤, 연말인 4분기에 5.75%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전망이 2025년 한 해 동안 필리핀 경제가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올해 5.5~6.5%라는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전 월간 보고서들과 일관되게, 2025년 7월 추정치에서도 필리핀 경제는 5.3%의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했다.

델라살대학교의 필리핀 고빈도 모형(Philippine High Frequency Model)을 기반으로, 경제학자들은 민간 소비가 2분기에는 5.12%, 3분기에는 4.88%, 4분기에는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간 소비 성장률은 2025년에 평균 4.8%, 2026년에는 6.0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민간 소비 성장률은 평균 4.88%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 지출 성장률은 2분기에 평균 15.52%, 3분기 13.02%, 4분기에는 11.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We do not see indications that the economy is growing significantly faster.”—DLSU AKI

2025년 정부 지출 성장률은 평균 14.37%, 2026년에는 12.97%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7.04%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총고정자본형성(Gross Capital Formation)은 2분기에 평균 4.51%, 3분기 4.17%, 연말인 4분기에는 6.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총고정자본형성은 평균 4.87%, 2026년에는 12.9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7.28%의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진한 성장세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소비와 투자 활동을 더욱 자극하려는 배경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향후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출 수입 간 격차인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은 2025년에 2.77%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올해 5.7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에는 수출이 0.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6.1% 증가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봤다. [Cont. page 2]

싱크탱크, 2분기·3분기 성장 둔화 전망

[Cont. from page 1]

경제학자들은 CREATE MORE 법안과 민관협력법(PPP Code) 등 무역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이러한 개혁들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개혁과 정책들이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필리핀 경제 구조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즉,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필리핀 산업계는 의류 수출 분야에서 가장 큰 경쟁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해 관세를 낮춘 상황에서도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리핀외국바이어협회(Fobap) 회장 로버트 M. 영(Robert M. Young)은 수요일 《비즈니스미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워싱턴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상호 관세를 각각 20%와 19%로 인하한 이후, 필리핀이 경쟁하기에는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자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32%에서 19%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에 “전면적인 시장 접근”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회장은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회복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 및 경제특보(SAPIEA) 프레데릭 고(Frederick Go) 특별보좌관의 확신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고 특별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 수석으로서 “필리핀도 미국에 제안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일부 산업계 인사들의 인식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참고 기사: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18/phl-unfazed-by-asean-rivals-gains-in-tariffs/>)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22/think-tank-sees-slower-growth-in-q2q3/>

필리핀 관세청, 수입업자 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21,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July



BW FILE PHOTO

관세청(CUSTOMS) 아리엘 F. 네포무세노 청장은 수입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이를 반부패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네포무세노 청장은 “수입업자들을 위한 인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관세청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이 2022년 제정된 관세행정명령(CAO) 제07-2022호의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oC는 개정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법무팀과 함께 CAO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를 줄임으로써, 이번 개혁은 부패를 억제하고 보다 정직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관세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밝혔다.

이번 개혁의 또 다른 목표는 수입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매년 갱신에 신경 쓰기보다는 본연의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인증 처리 수수료를 기존 2,000페소에서 5,000페소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신청서 양식도 추가 항목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준수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업자들은 인증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사업 관련 서류나 정보의 변경사항을 요약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7/21/686585/boc-extends-validity-of-importer-accreditations-to-three-years/>

2025년 말까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추가 2차례 인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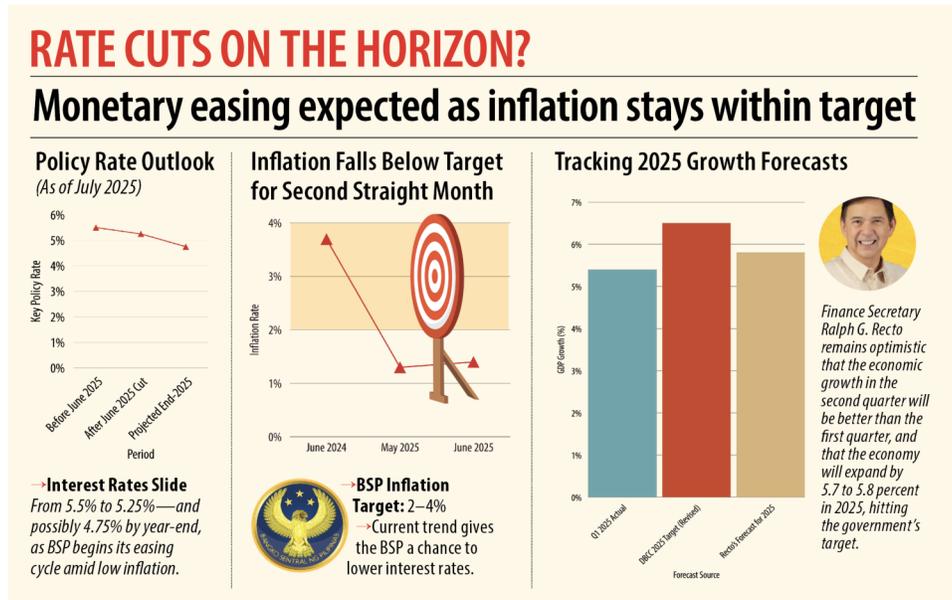
July 22,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필리핀 재무장관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랄프 G. 렉토(Ralph G. Recto) 재무장관은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총 50bp(기준점)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최고 정책결정기구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렉토 장관은 25bp씩 두 차례 인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렉토 장관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기준금리는 4.75%까지 낮아지게 된다.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25bp(기준점) 인하돼 5.25%가 된 바 있다. (참조: [BusinessMirror 기사](#))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의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라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렉토 장관은 “그 문제는 확실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남은 정책회의가 세 차례 더 예정되어 있으며, 각각 8월 28일, 10월 9일, 12월 11일에 열린다.

렉토 장관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입 비용 인하를 목표로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개편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필리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고 렉토 장관은 말했다.

그는 “꼭 두 차례 인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미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의 6월 인플레이션율은 1.4%로 5월의 1.3%보다는 상승했으나, 2024년 6월의 3.7%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참조: [BusinessMirror 기사](#))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인 2~4%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25년 1분기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은 5.4% 성장했으나, 당시 정부 목표였던 6~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각급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68%에서 5.56.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토 장관은 2분기 경제성장이 1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며, 2025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5.7~5.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낙관했다. 이는 정부의 목표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 Sources: BSP, PSA, DBCC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22/mb-seen-dealing-2-rate-cuts-more-till-end-2025/>

필리핀 수출업체, 무역 진흥을 위한 더 큰 지원 촉구

July 22,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수출업체들은 강력한 수출 개발 계획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며,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배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금 지원 부족으로 침체된 필리핀 수출 부문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필리핀수출업협회(Philexport)의 세르히오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Sergio Ortiz-Luis Jr.)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강력한 수출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계획의 실행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00억 페소도 되지 않는 필리핀 산업통상부(DTI)의 전체 예산이 정부 부처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DTI는 수출 개발 자금을 투자 진흥 예산과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통합 예산 역시 10억 페소 미만에 불과하다고 예산관리부(DBM) 자료는 보여준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DTI 산하 기관인 국제무역전시사절단센터(CITEM)가 해외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는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우리는 사실상 자금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수출개발기금(Export Development Fund) 명목으로 2천만 페소 또는 5천만 페소를 확보했던 사례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이 자금들이 실제로는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DTI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1990년대를 떠올리며, 당시 수출 부문이 경제 개발의 핵심 축으로 간주되었고, 산업통상부가 필리핀 수출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전자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다:

“1998년,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한창일 때에도 필리핀의 수출은 21%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으며, 최소한 당시 아시아에서는 최고였고,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했습니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이러한 성공이 강력한 수출 진흥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의류 산업 또한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며 연간 약 3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제품 개발, 마케팅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정책적인 지원과 기업환경 개선 등 비금전적인 지원도 수출업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990년대에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이 있었고,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이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는 경쟁력을 그들에게 빼앗겼다”고 과거와 현재의 수출 경쟁력을 비교하며 말했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필리핀이 격년으로 수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출 진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인 산업통상부(DTI)의 예산이 여전히 정부 부처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DTI의 수출 진흥 예산 확대는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하며,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CCT)에 배정된 예산의 일부만 수출개발에 돌려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총예산은 약 870억 페소, 이 중 150억 페소는 모니터링 비용으로 배정됨)

“그 모니터링 비용만이라도 DTI에 수출개발 용도로 지원한다면, 수출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 부스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하며, “우리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들은 참가할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출업체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찾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 간곡하게 당부했다: “수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exporters-seek-bigger-support-for-trade-promotion/>

필리핀-EU 무역 협상 진전 중 — 산업통상부

July 22, 2025 | Michael Din Dela Cruz | The Manila Times

산업통상부(DTI)는 필리핀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접근에 대한 협상이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 Manila Times®**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협상 라운드에서 알란 첵티(Allan Gepty) 통상차관보가 “다음 라운드부터는 시장 접근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첵티 차관보는 6월 협상 라운드에서 “양측이 현대 무역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뤄진 실질적인 진전은 양측 협상팀이 상호 수용 가능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자세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5일간 진행되었으며, 협상 범위에는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투자, 자본 이동, 지불 및 송금,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경쟁 정책, 관세 및 무역 촉진, 디지털 무역,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지리적 표시 포함), 행정 협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국영기업,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무역 기술장벽(TBT),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무역 구제 조치, 법적·제도적 사항 등이 다뤄졌다.

DTI는 이번 PH-EU FTA가 필리핀이 추진 중인 협정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주필리핀 EU 대사 마시모 산토로(Massimo Santoro)가 양측이 FTA에 디지털 첵터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필리핀 내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첵티 차관보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협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필리핀 당국자들은 유럽 36개국의 42개 국가별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표적 기업 연합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과 만나 이번 무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4년 기준 필리핀과 EU 간 총 교역액은 155억 달러에 달했으며, EU는 필리핀의 전체 무역 중 7.7%를 차지하는 제5위 교역 상대국이었다.

필리핀의 대EU 수출은 81억 달러, 수입은 75억 달러였으며, 필리핀은 2024년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 활용률이 사상 최고치인 8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7/22/business/top-business/ph-eu-trade-talks-progressing-dti/2153271>

에너지부, ‘장기 지연’ 재생에너지 사업 단속 강화

July 21, 2025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Department of Energy.

Philstar.com / Irra Lising

마닐라, 필리핀 — 에너지부(DOE)는 장기간 중단된 재생에너지(RE) 프로젝트들을 정리하기 위해 서비스 계약에 대한 추적 및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제는 깨울 때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일린 카퐁콜(Mylen Capongcol) 에너지부 차관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녀는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개발업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총 154메가와트의 잠재용량을 가진 1,400건 이상의 재생에너지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Cont. page 6]

에너지부, ‘장기 지연’ 재생에너지 사업 단속 강화

[Cont. from page 5]

이들 계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569건의 태양광, 420건의 수력, 307건의 풍력, 74건의 바이오매스, 32건의 지열, 그리고 9건의 해양에너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카퐁콜 차관보는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 가용 공간을 더 잘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국 내 또는 도착 에너지 공급은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현재 22%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부는 해지된 계약을 다른 개발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퐁콜 차관보는 “물론 그것이 가장 비용이 적고, 가장 효율적이며,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에너지부는 최소 105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일정 미이행으로 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총 88개 프로젝트 — 태양광 53건, 수력 17건, 풍력 10건, 지열 5건, 바이오매스 3건 — 은 아직 사전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에너지부는 해지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개발자들도 재고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21/2459416/doe-tightens-crackdown-sleeping-renewable-energy-projects>

마르코스 대통령-트럼프 회담 앞두고 PH-미국 간 관세 협상 여전히 진행 중

July 21, 2025 | Katrina Domingo | ABS-CBN News

워싱턴 D.C. — 마르코스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첫 회담 앞두고, 필리핀-미국 관세 협상 계속 진행 중

필리핀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공식 회담을 이틀 앞두고, 필리핀 측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 필리핀 외교관이 일요일(현지시간) 밝혔다.

필리핀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경제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했으며,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오랜 동맹국인 필리핀산 수입품에 대해 17%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7월 초 그 비율을 20%로 추가 인상한 데 따른 조치다.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는 이곳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협상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에서 '홍정 수단(bargaining chip)'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는 이제 양국 관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지이며,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필리핀에 부과한 20% 관세는 높은 수준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투자 및 경제특보이자 이번 협상단을 이끄는 프레데릭 고(Frederick Go)가 밝혔다.

“미국이 필리핀산 수출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고 특보는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FTA는 ‘아직 갈 길 멀어’

하지만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Cont. page 7]



Former US Presiden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and Philippine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in this composite photo. Jim Watson, AFP/Ryan Baldemor, PPA pool

PH-US tariff talks still ongoing, envoy says ahead of Marcos' meeting Trump

[Cont. from page 6]

“현재로서는 관세에 대한 이번 논의를 먼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기억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에도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양측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로무알테스 대사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도입했는데, 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공정무역을 촉진하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백악관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와 비상호적인 거래 관행이 야기하는 위협이 해소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2024년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미국과 필리핀 간의 무역적자 규모도 21.8% 증가해 49억 달러에 달했다.

필리핀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었으며, 이 외에도 자동차,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철강, 목재, 금괴 등이 면제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Source: <https://www.abs-cbn.com/news/business/2025/7/20/ph-us-tariff-talks-still-ongoing-envoy-says-ahead-of-marcos-meeting-with-trump-0735>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Scan to register!

JULY 30, 2025
THE MANILA SOUTHWOODS
LEGENDS COURSE

TOURNAMENT FEE:
 INCLUDING GREEN FEE, CADDIE FEE
 GOLF CART (SHARING), LUNCH
 GIVE-AWAYS AND 1 RAFFLE STUB

P10,000 PER PLAYER

NOTE: 30% DISCOUNT FOR MSGCC MEMBERS

Play for your Team and have a chance
 to win a RT ticket to North America
 and 1 RT ticket to Asia sponsored by:



Gold Sponsors:



Silver Sponsors:



THE ALL AMERICAS TEAM
THE ALL ASIA & PACIFIC TEAM
THE ALL EUROPE TEAM

Golf Cart Sponsors:

ASCENDION



Bronze Sponsors:



Organized b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Philippines

Logistics, Raffle
 & Give-away Sponsors:

Supported by:



LOVE
THE PHILIPPINES



In cooperation with:



Media Partn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